

# IPA, 10월 78만-81만원으로 동결

## 국내수요 감소로 가격상승 어려워 ... 11월에도 가격동결 전망

10월 IPA(Isopropyl Alcohol) 가격이 Bulk 톤당 78만-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0월 IPA 가격은 NPC와 Tokuyama의 오퍼가격이 50달러씩 인상됐고, Shell의 1000톤 Cargo가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결됐는데, IPA 관계자는 "IPA가 기본적으로 Overflow로 전자시장의 IPA 시장을 제외하고 합성피혁과 그라비아잉크 등의 시장축소로 가격인상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 해외 Supplier는 IPA의 10월 가격동결은 2002년과 2003년 전반기에 비해 수요가 감소된 것이 주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대체 IPA인 Mosthanol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대체 IPA인 Mosthanol은 2002년 이전에 이미 점유시장이 집중돼 있는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IPA와 교체돼 사용되고 있어 시장교체가 끝난 현재 Mosthanol이 IPA 수요에 타격을 주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 수입상은 "최근 고순도 IPA를 Recycling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페인트 시장의 수요가 계절적 요인으로 줄고 있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다른 수입상은 "IPA의 수요감소는 국내 경기악화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규제로 유기용제의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로 국내 용제시장에서 VOCs 규제로 인한 IPA 시장축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1월 IPA 가격전망에 대해 관계자들은 IPA의 원료인 Propylene 가격이 최근 하향세로 많이 안정돼 있어 11월의 IPA 가격은 환율변동에 따른 소폭의 변동만이 예상돼 10월 가격의 보합세로 전망했다.

또 10월 초 IPA 가격상승의 악재로 평가됐던 Dow UCC의 국내시장 추가유입설에 대해 관계자는 "Dow가 국내 SK네트웍스, SK에 IPA를 일부 공급하고 있지만, Dow의 울산탱크는 아시아 전진창고로 국내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IPA를 월 1000톤씩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으며, "점진적인 시장확보 차원에서 SK와 10월부터 월 200톤씩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IPA 내수가격은 8월 kg당 750-800원, 9월 780-800원, 10월 780-810원에 거래됐으며, IPA 수입상들은 11월 가격을 kg당 780-810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세정제로 사용되는 HP-IPA는 특수제품으로 일반 IPA보다 고가에 형성돼 있으며, HP-IPA는 국내 유일의 생산기업인 LG화학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본 Tokuyama가 일부 공급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1/03>